

日本 所藏 春香傳의 文體攷

——同音語의 語戲를 中心하여——

朴 甲 洙

(부교수·國語學)

I. 序 論

春香傳은 우리의 대표적인 古典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는 한 마디로 春香傳이라 이르듯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春香傳은 대체로 플롯은 비슷하나, 디테일이 다른 많은 異本을 가진 古典이다. 現在까지 알려진 異本만 하여도 약 100種쯤 되며, 1910年代 이전에 나온 것만도 약 40種쯤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春香傳은 異本들 사이의 系譜가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들 異本の 文體上의 特性 또한 거의 研究되지 못한 실정에 놓여 있다.

春香傳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註釋 작업이 피해졌다. 이밖에는 文獻的 연구와 文學的 연구가 다소 피해졌을 뿐이다. 文學作品은 물론 主題를 중심한 文學的 연구가 피해져야 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表現의 연구가 피해져야 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春香傳은 異本間의 系譜가 分明치 않으며, 같은 文章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表現이 다르다고 일러짐에 따라…….

日本에는 많은 우리 古典이 소장되어 있다. 春香傳의 異本만 하여도 1910年 이전의 刊寫本으로 보이는 것이 몇 種類 있는 것으로 보인다.

春香傳의 연구는 完板「烈女春香守節歌」등 몇개 異本만이 집중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異本들은 이름만이 거론되었을 뿐, 作品 자체에는 전혀 연구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日本 所藏의 이러한 異本에 대해서는 資料의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형편이니 본격적 연구는 말할 나위도 없다.

필자는 이에 春香傳의 異本間의 系譜를 탐색하며, 그 文體·表現上의 特質을 규명하기 위해 日本 所藏 異本들의 文體를 比較 考察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고찰은 주로 同音語의 語戲인「결말」을 중심으로 피해질 것이다. 이는 春香傳의 悲劇的 事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으며 읽을 수 있는 매력적 表現이기 때문이다.

「결말」을 中心한 春香傳의 表現은 筆者가 이미 몇 개의 代表的인 異本을 中心으로 고찰

해 본 바 있다.⁽¹⁾ 따라서, 本 日本 所藏 春香傳의 고찰에 있어서는 日本 소장본만이 아니라, 國內외의 대표적인 異本の 表現이 비교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비로소 그 系譜와 獨自性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國內 자료가 아닌 外國 소장의 우리 資料는 하루 빨리 연구의 손길이 미쳐 그 眞價가 규명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여야 入受조차 어려운 대부분의 연구자는 비로소 이에 접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日本 所藏 春香傳의 文體 연구는 이런 면에서도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文獻的 考察

한 나라의 文化가 흔히 이웃 나라에 남게 된다는 말이 있다. 우리의 古典 가운데도 國內에는 傳本이 없고, 外國에만 전해지는 것이 있다. 우리의 대표적인 고전 春香傳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國內에는 전해지지 않고 外國에만 전해지는 대표적인 春香傳으로는 파리 東洋語學校 소장의 「南原古詞」 및 30張本 「春香傳」, 日本 東洋文庫 소장의 「春香傳」, 九州大學 소장의 35張本 및 30張本 「春香傳」과 같은 것이 있다. 이 가운데 東洋語學校의 「南原古詞」와 東洋文庫의 「春香傳」은 흘림체의 筆寫本으로, 質이나 量에 있어 가히 春香傳의 壓卷이라 할 異本이다.

日本에 소장된, 1910年 이전의 刊寫本으로 筆者가 접한 것은 5種이다. 이제 그 소장처와 書名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東洋文庫 소장 春香傳(10卷・筆寫李)
- 春香傳(安城板・20張本)
- 九州大學 소장 春香傳(35張本)
- 春香傳(30張本)
- 東京外大 소장 春香傳(30張本)

그러면, 이들 異本에 대해 간단한 文獻的 考察을 꾀해보기로 한다.

東洋文庫 소장의 10卷으로 된 春香傳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春香傳의 壓卷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10권 260張으로 그 體裁는 18.5cm×21cm로 되어 있다. 1面 11行의 흘림체의 筆寫本으로, 各卷 끝에는 「세 ××(干支) ×월일 향묵 등서」라고 되어 筆寫

(1) 筆者의 春香傳의 文體・表現의 考察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春香傳의 諧謔의 表現(上)―결말을 中心한 異本の 表現攷, 亞細亞女性研究, 第18輯, 淑大 亞女研, 1979
- 春香傳의 한 文體樣相, 蘭汀 南廣祐博士 華甲紀念論叢, 一潮閣, 1980
- 春香傳의 諧謔의 表現(下), 亞細亞女性研究, 第21輯, 淑大 亞女研, 1981

年代와 筆寫者를 밝히고 있다. 필사 연대는 1900년 경자에서 1924년 갑자 年間に 걸친 것으로 추정된다. 제1~4권이 「기유」요, 제5, 7, 9, 10권이 「신희」로 되어 있다. 「잡지」(「잡자」의 誤記인듯)로 된 제6 권은 筆體가 달라 後寫本으로 추정케 하며, 「정조」로 되어진 제8 권은 다른 秩의 필사본이 섞여든 것으로 보게 한다.⁽²⁾ 따라서, 본 사본은 1909년에서 1911년 사이에 筆寫된 것으로 推定된다.

本書는 그 內容과 表現으로 볼 때 古本 春香傳과 함께 南原古詞와 같은 系統의 異本이다. 서사 연대로 보면 南原古詞가 1864年(甲子)에서 1869年(己巳)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요(金東旭, 1979: 20), 古本 春香傳이 1912年 崔南善에 의해 개편된 것이니, 東洋文庫本은 時代的으로 이들 異本 사이에 필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東洋文庫本은 南原古詞와 비교할 때 좀더 長篇에 속하는 것으로, 그 構成도 짜여진 것이다. 익살스러운 사설과 외설적인 사설이 부연되었으며, 필연성이 적은 가요나, 사설이 생략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東洋文庫本이 필사 연대만이 아니라, 作品 자체가 後代에 이루어진 것임을 意味하는 것이라 하겠다.

東洋文庫本과 古本 春香傳의 관계는 同系라는 정도를 넘어 그 底本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古本 春香傳은 東洋文庫本의 內容을 한국적 향토색이 드러나도록 바꾸고, 외설적인 사설을 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두 異本の 表現은 대부분 文脈上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同一한 表現임을 확인할 수 있다(朴甲洙, 1982).

둘째, 安城板 春香傳은 20張本으로 東洋文庫 外에 金東旭 李能雨 등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단과 무패, 一面 15行의 「안성동문이신판」으로, 그 刻刊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그 內容으로 보아 哲宗 이후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安城板은 京板 16張本과 plot이 같아 京板 春香傳과 同系の 것으로 보이며, 逸本 京板 23張本과 같은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金東旭, 1977: 292).

셋째, 九州大學 35張本 春香傳은 단과 무패, 1面 15行의 보통 京板本 크기로, 京板 특유의 홀림체 판각 본이다. 刊記가 없어 板刻 연대는 분명치 않으나, 1840年代로 추정, 京板의 最古本으로 추정되고 있다(金東旭, 1977: 290-3). 本書는 그 plot이 南原古詞와 비슷하며, 共有하는 사실이 많아 同系の 板本으로 보게 한다.

네째, 九州大學 30張本 春香傳은 단과 무패, 1面 14行이 환각된 것이다. 글씨체는 홀림체이나, 35張本에 비해서는 덜 홀린 것이다. 이것도 刊記가 없어 판각 연대는 분명치 않으나, 京板本이 簡化된 것으로 볼 때 35張本보다 뒤에 刊行된 것으로 보인다. 30張本은 京板 16張本과 plot이나, 사실이 共通되는 점이 많아, 京板 16張本の 先行本으로 추정케 한다.

다섯째, 東京外大 소장 30張本 春香傳은 九州大學本과 같은 板本을 복각한 것으로 추정된

(2) 東洋文庫本은 본래 前間恭作 藏本으로, 그 冊이 黃冊이었던 듯, 落書가 보인다. 따라서, 날권의 淸바뀜을 예상할 수 있다.

다. 그것은 前記 九州大學本과 板形은 일치하나, 板刻이 소졸하고, 字形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字가 상당수 있음을 보아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이상 다섯 가지 異本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東京外大本이 九州大學 30張本과 同一한 表現의 것이므로, 이를 제할 때 同音語의 語戲는 東洋文庫本 2種과, 九州大學本 2種, 도합 4種의 日本 所藏 春香傳을 자료로 하여 考察하게 된다.

Ⅲ. 全音 同音語의 語戲

「결말」이란 우리의 고유한 修辭法이다. 이것은 辭典에 의하면 「사물을 일컬을 때에 직접으로 말하지 않고, 다른 말로 빗대어 하는 말」(李熙昇, 국어 대사전)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그러나, 「결말」은 무어니무어니 해도 「同音 또는 類音의 말을 장난 삼아 쓰는 것」이 주종을 이룬다. 이것은 西洋 修辭法에서 이르는 펀(pun) 또는 패리노우메이지어(paronomasia)에 해당하는 것이다(朴甲洙, 1979a : 178, 1979b).

同音語의 語戲는 그 形式的인 면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單語의 全音節이 같은 全音 同音語(類音語)에 의한 결말과, 單語의 一部만이 音이 같은 部分 同音語(類音語)에 의한 결말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들 결말을 考察함에 있어서는 全音 同音語에 의한 語戲와 部分 同音語에 의한 語戲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全音 同音語에 의한 語戲를 살펴보고, 部分 同音語에 의한 語戲는 다음에 章을 달리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면, 日本 所藏 春香傳에는 全音 同音語의 결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먼저 各 異本에 쓰인 결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30 張 本	安城板本	35 張 本	東洋文庫本	30 張 本	安城板本	35 張 本	東洋文庫本
오리나무 숫적다시	오리목 「코」사설	상사나무 별진잘숙 삼강오륜 「거문고」사설 썩러졌다 妓生點考 너	상스목 숫적다 별진잘숙 이성지함 「코」사설 잠슈슈 삼강오륜 「거문고」사설 네비트고 지당삼				구실 팅낭 九九法 귀덕이 썩러졌다 妓生點考 밤주 거문소 너 가옥가옥

同音語에 의한 결말의 分布는 일정치 아니하다. 圖表에서 보면 作品의 길이에 比例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나 그렇지는 아니하다(朴甲洙, 1980). 따라서, 결말에 의한 表現性은 東洋文庫本이 가장 두드러지고, 그 다음이 35張本이 된다 하겠다. 異本間의 수용 관계는 35張本과 東洋文庫本の 두드러진 공유 경향 外에는 별다른 특징적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30

張本과 安城板本, 安城板本과 東洋文庫本이 결말 하나씩을 共有할 뿐이다.

그러면, 먼저 이들 결말의 共有 關係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이들 결말을 살펴보기로 한다.

- ① 「오리나무」 사설 (2): 30張本—安城板本
- ② 「코」 사설 (2): 安城板本—東洋文庫本
- ③ 「상사나무」 사설 (2): 35張本—東洋文庫本
- ④ 「별진 잘숙」 (2): 35張本—東洋文庫本
- ⑤ 「삼강오륜」 사설 (2): 35張本—東洋文庫本
- ⑥ 「거문고」 사설 (2): 35張本—東洋文庫本
- ⑦ 「쳐터졌다」 사설 (2): 35張本—東洋文庫本
- ⑧ 妓生點考 사설 (2): 35張本—東洋文庫本
- ⑨ 「너」 사설: 35張本—東洋文庫本

① 「오리나무」 사설

李道令이 暗行하여 내려올 때 任實邑에 당도하니 이 때가 마침 三春이었다. 그리하여, 三春景을 노래하는 가운데 새타령, 나무타령이 나오는데, 「오리나무」 사설은 나무타령 가운데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機智에 의해 형성된 결말이다. 30張本과 安城板本은 表記上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全的으로 동일한 내용의 익살스러운 語戲이다. 30張本の 사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십이(十里)안의 오리나무, 오리(五里)밭길 십이나루, 마쵸 셋다 은항나무, 넘그려 상사나무, 넘마쵸아 쪽나무, 방귀 꾸여 뽕나무, 홀 달이 전나무, 두 달리 돌피나무, 하인(下人) 불너 상나무, 낭반(兩班)도여 귀목나무, 부쳐님전 고양나무.

이 사설에서는 「오리나무(楡理木)」가 「五里나무」, 「상사나무(山査)」가 「想思나무」, 「쪽나무(木藍)」가 「쪽(입맞추는 소리) 나무」, 「뽕나무(桑木)」가 「뽕(방귀소리) 나무」, 「전나무(樅木)」가 「저는(肢行) 나무」, 「돌피나무(돌메나무)」가 「들뼨(擧足) 나무」, 「상나무(香木)」가 「常나무」, 「귀목나무(槻木)」가 「貴木나무」, 「고양나무(黃楊木)」가 「供養나무」와 같이 同音 및 類音語에 의해 語戲를 한 것이다. 이것은 主觀의 滑稽美를 드러내는 결말이다.

「오리나무」 사설은 위의 두 異本外에 南原古詞와 李明善本에도 보인다. 南原古詞의 사설은 30張本과 같은 것이며, 李明善本은 그 表現이 簡化된 것이다.

② 「코」 사설

「코」 사설은 道令이 周易을 읽으며 「하고」의 준말인 「코」를 耳目口鼻의 「코」에 돌려 결말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諷刺的인 결말이다. 「코」 사설은 두 異本이 차이가 있으며, 이들은 또한 다른 異本에 비해 그 表現이 不完全한 것이다. 두 異本の 사설은 다음과 같다.

건(乾)은 원(元)코, 형(亨)코, 리(利)코, 경(貞)코, 춘향 코, 너 코 훌터 디고 <安城本>
 원은 형코, 경코, 춘향이 코, 너 코 더인이 조코 <東洋文庫本>

이들 異本 外에는 李明善本, 高大本, 成春香歌, 烈女春香守節歌, 古本春香傳 등 많은 異本에 보인다. 이들의 表現은 하나 같이 다 다르나, 東洋文庫本과 古本 春香傳은 同一한 것이다. 同系의 南原古詞는 이 사실을 결하였다. 이들 사실 중 가장 골제적인 것은 李明善本과 高大本이다.

③ 「상사 나무」 사실

상사나무 사실은 李道令이 광한루 구경할 때 山川 景概를 풀이하는 가운데 草木 풀이를 한 것이다. 이 때 「상스나무」와 「북나무」에 결말이 씌었다. 이 결말은 35張本과 東洋文庫本이 同一한 것으로, 다만 表記에 약간의 差異를 보일 뿐이다. 35張本の 결말은 다음과 같다.

넌 그리는 상사나무 청산영니 부운간(靑山影裏浮雲間)의 조석 네불(朝夕禮佛) 북나워라.

이것은 기지에 의한 결말이다. 「산사」 나무는 「오리나무」 사실에서와 같이 「想思」 나무에 빗대어졌으며, 「북」 나무는 「불(佛)」 나무와 同一視되었다.

「상사나무」 사실은 南原古詞나 古本春香傳에도 보이며, 이들의 表現 內容은 모두 同一한 것이다.

④ 「별진 잘숙」

「별진 잘숙」은 道令이 千字文의 讀法을 빌어 春香의 모습을 感覺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는 「별 진(辰). 잘숙(宿)」의 「잘 숙(宿)」을 擬態語 「잘숙」과 同一視하여 결말을 한 것이다. 이러한 결말은 35張本과 東洋文庫本外에 南原古詞, 李明善本, 古本 春香傳 등에 보인다.

⑤ 「거문고」 사실

「거문고」 사실은 道令과 春香이 初夜에 주고 받은 語戲이다. 이는 「거문고(玄琴)」를 「거문괴(黑櫃)」, 「타다(彈奏)」를 「타다(乘)」, 「뜯다(奏)」를 「뜯다(摘)」로 보아 말놀음을 한 것이다. 이것도 機智에 의한 결말로, 그 表現 效果는 허튼소리(facetiouness)에 의한 의살에 있다 하겠다. 35張本과 東洋文庫本은 表記가 약간 다를 뿐 거의 같은 사실로 되어진 것이다. 東洋文庫本에는 「먹칠한괴냐?」는 결말이 하나 더 쓰인 것이 두드러진 차이일 뿐이다. 35張本の 사실은 다음과 같다.

「저기 웃득 선 거시 쓰개질군이냐?」

「스름이 아니라 거문고요.」

「거문괴라 호니 웃칠홀 괴냐?」

「거문 거시 아니라, 줄타는 거시오.」

「줄을 타면 하로 멋니는 가늌니?」

「타는 거시 아니라. 쫓는 거시오.」

「조일 잘 쓰드면 몇 조각이나 쫓늌니?」

「그렇게 쫓는 거시 아니라, 손으로 줄을 희롱하면 풍뉴 소리 난다 호오.」

「정녕 그러하면 흥번 드를 만호고나.」

거문고 사실은 35張本과 東洋文庫本 外에도 많은 異本에 보이는 것이다. 南原古詞와 古本 春香傳은 東洋文庫本과 같은 系統의 것이다. 이에 대해 高大本은 내용이 약간 變形되었으며, 李明善本은 템포가 빠른 對話體로 되어진 것이다(朴甲洙, 1980).

⑥ 「삼강 오륜」사설

「삼강 오륜」사설도 初夜에 道令이 말놀음을 한 것이다. 이 語戲는 「三綱五倫」을 동음어 「三江五尹」으로 돌려 우스개를 한 것이다. 35張本과 東洋文庫本은 같은 文脈에 다른 사항을 代入한 것이다. 35張本의 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에라, 이년 물너거라, 세상의 스람되고 삼강 오륜을 모를소냐? 흑룡강(黑龍江) 두만강(豆滿江) 압록강(鴨綠江)이 삼강(三江)이오, 판윤(判尹) 좌윤(左尹) 우윤(右尹) 부윤(府尹) 서윤(庶尹) 이 오륜(五尹)이니 내 어이 모를소냐? 내 쫓 되기 원통거든 내가 네 9들이 되조고나.」

東洋文庫本에서는 이것이 한강(漢江) 덕동강(大同江) 금강(錦江), 한성 판윤(判尹) 좌우윤(左右尹), 경주 부윤(府尹), 의주 부윤(府尹)의三江五尹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 사실은 이들 두 異本 外에 南原古詞와 古本 春香傳에 보인다. 이들은 모두 東洋文庫本의 사실과 同一한 內容의 것이다.

⑦ 「썩러졌다」사설

「썩러졌다」사설은 道令이 春香에게 南原府使의 陞遞를 알릴 때 쓰인 결말이다. 35張本과 東洋文庫本은 같은 內容이나 表現에 차이를 보여 준다. 곧, 35張本이 좀더 간결한 對話形式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썩러졌다, 썩러졌다.」

춘향이 호는 말이

「낙성을 하였단 말이오? 그라서 티단이나 닷치지 아니하였소?」

「뉘 아들놈이 썩러졌다 호더냐?」

「그러면 엇진 말이오?」

「우려 어루신네가 골아싼다, 골아싼다.」

「외고, 골다니? 우리 스도가 갈니셋나 보오.」

「그리하였다.」

〈35 張本〉

이 결말은 陞遞의 下命을 뜻하는 「썩러졌다」를 「떨어질 낙(落)」字의 뜻으로, 또 「썩어지다」를 돌려서 「끓다」로 表現함으로 익살스러운(jocular) 表現을 한 것이다.

「썩러졌다」사설은 南原古詞와 古本 春香傳에도 보인다. 東洋文庫本과 古本 春香傳은 同

一한 內容으로 南原古詞에 비해 簡化된 것이다.

⑧ 妓生 點考

妓生 點考는 刑房이 기생 都案을 놓고 호명할 때 才談을 하는 것이다. 곧, 妓名으로서의 固有名詞를 同音語로서 再解釋하여 재치 있는 말놀이(fun)를 한 것이다. 이러한 결말은 35張本과 東洋文庫本이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妓生 數에 있어서 만이 아니라, 사실에도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35張本은 다음 例文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妓生 數가 30名이다.

중추팔월 십오야의 광명 조타 추월(秋月)이, 작소합서지(作樂咸棲枝)하니 상서롭다 치봉(彩鳳)이, 분벽소창 요적처(寥寂處)의 한가하다 향심(香心)이, 독좌 옥황니(獨坐玉篋裏)하니 탄금(彈琴)이, 니슈(麗水)의 황금이오 문전의 미옥(美玉)이라 만당 보화金玉(金玉)이, 녹양 삼월춘(綠楊三月春)하니 춘단(春丹)이, 동방소창 빗썬 달물 억조 창성 사랑(望月)이, 강남치련 금이모(今已暮)라 부용(芙蓉)이, 원앙금니 춘몽난(春夢蘭)하니 네가 일정 영이(永愛)로다. 옥토 도약(擣藥) 항아궁의 계월(桂月)이, 댕향 국색 너를 보니 설부 화용 승옥(勝玉)이, 명스십니 느진 봄의 회당춘(海棠春)이, 동녕 초성 명월(明月)이, 세우동풍 향난간(香欄干)하니 화중부귀 모란(牡丹)이, 상엽(霜葉)이 흥어이 월화(月華)하니 부귀강산춘 외춘(外春)이, 낙낙장송 천고절은 송절(松節)이, 츠화개진 경무화(此花開盡更無花)는 국화(菊花)라, 별유연디 선월(仙月)이, 서정강상월이 동두렷이 밝았는데 동각 설중미(雪中梅)라. 은하수면 오작교의 칠월칠석 강선(降仙)이, 의시옥인너(疑是玉人來)하니 미화(梅花)로다. 주황 당스 벌비듬 초고나니 금낭(錦囊)이, 녹양심처 다정(多情)하니 임임(鷓鴣)이, 화랑(花亮) 춘풍 다스하다 연연(娟娟)이, 낭금(洋琴)난초 거문고의 청가묘무 혜란(蕙蘭)이, 만첩청산 드러가니 어비엽다 범덕이, 속고름의 향단(香丹)이, 것고름의 부전이, 비(婢)의 털네, 비의 썩이.

이에 대해 東洋文庫本에는 43名이 호명되고 있다. 이러한 才談은 成春香歌, 南原古詞, 高大本, 李明善本, 烈女春香守節歌, 古本 春香傳 등에 쓰이고 있다. 南原古詞와 古本 春香傳은 東洋文庫本과 매우 類似한 사실을 보여 준다. 南原古詞는 기생이 35名이고, 古本 春香傳은 49名이다. 古本 春香傳에서는 東洋文庫本의 妓名 앞뒤에 새로운 이름을 덧붙이고 있다.

⑨ 「너」 사실

「너」 사실은 春香家를 찾은 御史와 春香母 間의 대화이다. 御史가 「너(我)로세」한 「너(我)」를 春香母가 「너(煙氣)」로 돌려 결말을 한 것이다. 이것은 재미 있는(fun) 결말이다. 35張本과 東洋文庫本은 그 表現이 大同小異하다.

「거 누구요?」

「내로세」

「너라 하니 굴독의 아들인가?」

〈35張本〉

「너」를 굴독의 아들이라 한 것은 연기가 굴독에서 나오기 때문에 擬人化하여 표현한 것이다. 「너」의 사실은 南原古詞, 李明善本, 古本 春香傳 등에 보인다. 李明善本에서는 「굴독의 아들」이 「굴독새 아들」로 바뀌어 차이를 보여 준다.

이상 두어 異本에 共有하는 同音語에 의한 결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共通性을 지니는 결말 外에 한 異本에만 나타나는 個性的인 表現으로서의 결말도 있다. 이것은 앞의 圖表에 보이는 바와 같이 東洋文庫本の 表現이 가장 두드러진 경향을 보인다.

① 「숫적다」새 사실은 그 울음에 새로운 有緣性을 부가한 결말이다. 「풍년시 숫적다, 흥년시 숫텡텡」이 그것이다. 30張本の 春香이 읊은 時調에 보이는 「숫적다시」는 결말이라기 보다 소적새의 異稱으로 씌어진 것이라 하겠다. 소적새 사실은 南原古詞, 李明善本, 古本 春香傳에도 보이는 것이다.

② 「이성지합」 사실은 李氏 成氏의 합인 「李成之合」을 「二姓之合」으로 기발한 해석을 하여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道令의 결말로, 成春香歌, 李明善本, 烈女春香守節歌 古本春香傳 등 많은 異本에 보인다. 南原古詞에는 보이지 않는다.

③ 「잡슈슈」 사실은 初夜에 春香이 「도련님 약췌 잡슈」한 말을 道令이 「잡슈슈」로 받아 결말을 한 것이다. 「안아, 이에 잡슈슈라 호는 거시 쌍쓰러기 슈슈가 잡슈슈냐?」가 그것이다. 이는 골계적 익살로, 古本 春香傳에 이어진다.

④ 「네 뱃 튀고」도 道令이 初夜에 말장난 한 것으로, 「뱃(腹)」를 「배(船)」에 同一視하여 장난(fun)한 것이다. 「뱃」 사실은 南原古詞, 烈女春香守節歌, 古本 春香傳에도 보인다.

⑤ 「키삼장」, 「구실」, 「팅낭」은 東洋文章本에만 보이는 외설적인 결말, 곧 肉談이다. 이들은 다 初夜에 道令과 春香이 나눈 결말이다. 「키삼장」은 「개집」을 이르는 것이나, 「키삼장(一三丁)」의 접두사 「키」를 「키(犬)」로 보아 결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구실은 同義語라기보다 多義性에 의해 결말을 한 것이다. 이것은 修辭法으로 보아 패러노우메이지아(paronomasia)에 속하는 것이다(朴甲洙, 1980). 「구실」이란 春香이 「여자가 웅당하여야 할 일」 곧, 經度란 뜻으로 이 말을 한테 대해 道令은 이것을 장난조로 「公的인 직무」로 돌려서 받아 말장난을 한 것이다. 이 때의 表現은 다음과 같다.

눈결의 얼는 보니 삼삼이의 처인거시 텡낭호고 야릇호다. 늙근 중의 곳갈쳐로 이리저리 가르 누벼 네 귀 번듯 텡다라셔 두 귀는 접어 텡코 두 귀는 쓴을 다라 고미텡 정자 모양으로 아조 담박 차엿구나.

「저저는 무삼 웃시니?」

춘향이 함소함티 텡답호덕,

「웃시 아니라, 키당삼이라 호오」

「티저 네 집이 부자로다. 키로 삼장을 호여 텡는가 보다마는 차기는 무삼일고?」

「초하로 보롬의 구실호기의 찻소.」

「구실이라니, 무슨 구실 단니노니? 니영청의 단니노나, 금위영의 단니노나, 훈련도감 단니노나, 충용청의 단니노나, 용호용의 단니노나 포도청의 단니노나, 순청의 단니노나, 무삼 구실 단니노니?」

「그런 구실 아니오라, 너자의 팔자 가소로와 삼오춘광 텡랑이텡 월후라 호는 거슬 달마다 호오.」

「월후 삼장호 너 돛코 십년 동당의 기췌 관역쳐로 잠간 니려서려무나.」

「그만 과연 중난호오. 그만호여 자사이다.」

「팅낭」사설은 「孟浪」을 「盲囊」으로, 「神通」을 「귀신의 방귀」로 돌려 諧謔적인 표현을 한 것이다. 그 表現은 다음과 같다.

무삼 말을 무심히 듣는 일이 업서 도련님이 어너 틈의 말도 잘 비호고, 쪼 이붓치의도 아조 익달 하여 성소치 아니호고, 쪼 가금붓치를 모를 것 업고, 온갖 잡기 다 잘호고, 세상 지담 다 호고, 텡낭호고 신통하여라.

「어휘, 소경의 불알이 텡낭이나, 귀신의 방귀가 신통이나? 먹은 잠시 잊는 줄 모르고 그러도 낙양호절 풍류랑이랴다.……」

⑥ 「귀덕이」 사설도 道令의 결말로, 馬夫의 妻인 茶母의 이름이 「귀덕이」라 이를 「구덕이」로 보아 「그 일흠 더럽다」고 한 것이다. 「귀덕이」 사설은 南原古詞와 古本 春傳傳에 다 같이 보이는데, 古本 春香傳은 東洋文庫本과 같은 表現이며, 南原古詞는 이들에 비해 째어진 것이다.

⑦ 「밥죽」 사설이란 山間 佛堂 선비들이 「識字」를 同言語 「食즈」로 돌리고, 이를 다시 同義語 「밥즈」로 돌려서 표현한 것을 이른다. 이는 매우 기지에 찬 결말이다. 「밥즈」 사설은 南原古詞, 古本 春香傳에도 보인다.

⑧ 「거문소」 사설은 御史와 농부가 주고 받은 결말이다. 이것은 「벗」이 陽光과 보습 위의 쇠조각, 「성이」가 流水과 쟁기의 部品, 「양지머리」가 陽地와 陽支頭를 의미함에서 同言語의 결말을 한 것이다. 기지에 의한 익살의 表現이다. 東洋文庫本의 이때의 수작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저 농부 여릅시. 검은 소노 밧출 가니 컴컴하지 아니호지?」

농부 대답하되,

「그러키의 밧으라고 벗 다랴지오.」

「벗 다라시면 웅당 더우려니?」

「덜기의 성이장 붓쳐지오.」

「성이장 부쳐시니 웅당 초지?」

「초기의 쇠게 양지머리 잇지오.」

이러한 「거문소」 사설은 역시 南原古詞, 高大本, 李明善本, 古本 春香傳등에 보이며, 古本 春香傳은 東洋文庫本과 同一한 것이다. 南原古詞는 같은 內容에 表現上 약간 차이를 보인다.

⑨ 「가옥가옥」 사설은 옥담 위의 가마귀 소리를 판수가 「佳屋佳屋」이라고 재해석한 것이다. 東洋文庫本은 이때의 장면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쪼 고히호 일이 옥담 우회 가마귀가 날을 보고 가옥가옥하니 아마도 날 잡아갈 가마귀가 보오.」

판서 대답하되

「그는 그러치 아나, 가옥가옥 흥는 뜻은 아름다울 가(佳) 따오, 집 옥(屋)따라. 경스 잇실 중좌로 다.」

「가옥가옥」사설은 成春香歌, 高大本, 李明善本, 烈女春香守節歌 등에 보인다. 이 가운데 高大本, 李明善本은 各各「가옥가옥 갈가옥 짹짹」, 「가옥가옥 갈가옥 오비약 짹짹」으로 擴大된 것으로, 기지와 익살이 넘치는 表現이다.

이상 同音語에 의한 語戲를 살펴보았거니와, 이들의 表現效果는 한마디로 知的 조작에 의한 諧謔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同音語나 多義語의 活用에 의해 익살스럽거나(ludicrous), 기묘하거나(odd), 對照의인(antithetical) 表現 效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異本間の 關係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日本 所藏本 사이에는 35張本과 東洋文庫本만이 많은 結말을 共有해 매우 밀접한 關係를 보일 뿐이었다. 그런데, 다른 異本들과의 關係도 살펴보면 18개의 結말이 다음과 같이 共有關係로 나타난다.

- 1) 東洋文庫本—古本春香傳 16/18
- 2) 東洋文庫本—南原古詞—古本春香傳 12/18
- 3) 35張本—東洋文庫本—南原古詞—古本春香傳 7/18
- 4) 東洋文庫本—南原古詞—李明善本—古本春香傳 7/18
- 5) 東洋文庫本—高大本—古本春香傳 5/18
- 6) 35張本—東洋文庫本—南原古詞—李明善本—古本春香傳 4/18

이로 보아 東洋文庫本과 古本 春香傳의 밀접한 關係는 分明히 확인된다. 南原古詞와 古本 春香傳은 12/18이며, 東洋文庫本과 共有하는 「오리나무」, 「이성지함」 「가옥가옥」 사설을 結해 古本春香傳과의 關係가 보다 소원함을 보여 준다.

同音語의 結말이 錫어진 場面은 地文과 對話로 나눌 때 「상사나무」 「숫적다」사설 외에는 모두 對話에 錫어 作中人物에 의한 結말임을 보여 준다. 그러면, 누가 結말을 쓰고 있는 것인가? 結말의 大部分은 李道令이 쓰고 있는 것이다. 李道令은 18개 結말 가운데 12개를 쓰고 있다. 나머지는 春香母, 刑房, 선비, 판수가 各各 하나씩 쓴 것이다. 따라서, 이들 結말로서 李道令의 앞전하지만 않은 喜劇의 性格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性格을 우리는 言語만이 아닌 行動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Ⅳ. 部分 同音語의 語戲

部分 同音語에 의한 語戲란 語頭音이나 語末音を 活用한 結말을 이른다. 이것은 頭韻(alliteration)과 脚韻(rhyme)에 의해 韻律的 效果까지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部分 同音語에 의한 結말은 春香傳에 애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技法을 고찰함에 있어 脚韻에 의한 結말과 頭韻에 의한 結말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脚韻에 의한 결말

脚韻이란 단어의 語末音(final sound)을 같게 表現하는 韻律的 裝置(metrical device)를 이룬다. 그러나, 國語의 경우 語末音이 같다는 것은 여러가지 다른 意味를 지닌다(朴甲洙 1979b). 여기서는 고찰의 대상이 詩 아닌 小說이기에 語末 音節이 同一한 것을 脚韻으로 보아 고찰을 전개하기로 한다. 이렇게 볼 때 脚韻에 의한 결말은 다음과 같이 쓰인 것으로 나타난다.

30 張 本	安 城 板 本	35 張 本	東 洋 文 庫 本
춘향·사향 스락이 노락 「인」字 타령 「연」字 타령 「양이」 사설 슈결·괴결 슈결·꼭결 노름·골음	춘향·스향 스락이 노락 「인」字 타령 「년」字 타령 「양이」 사설 슈결·괴결 슈결·꼭결 노름이 고름	춘향·스향 쥬천·투천 턴즈는 감즈 「덕」字 소리 「양이」 사설 슈결·괴결	춘향·난향 그닐지 고원지 천즈는 감자 「덕」운가 「양이」 사설 영낙·송낙 말이나 절이나 관술이나 요술 잔결·슈결 슈결·괴결 슈결·명결 슈결·남결 사도·오도 유유딩동양초향 「몽」字 사설 노름·고름 스망 노름·고름 풍악이 벌악

이러한 결말의 異本間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춘향·스향 (40): 30張本—安城板本 35張本—東洋文庫本
- ② 「양이」 사설 (4): 30張本—安城板本—35張本—東洋文庫本
- ③ 슈결·괴결 (4): 30張本—安城板本—35張本—東洋文庫本
- ④ 서책 풀이 (4): 30張本—安城板本—35張本—東洋文庫本
- ⑤ 노름이 고름 (3): 30張本—安城板本—東洋文庫本
- ⑥ 「인」字 타령 (2): 30張本—安城板本
- ⑦ 「연」字 타령 (20): 30張本—安城板本
- ⑧ 쥬천·투천 (2): 35張本—東洋文庫本
- ⑨ 「덕」운가 (2): 35張本—東洋文庫本

그러면 이들 결말을 다음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춘향·스향

「춘향이니 스향이니……」하는 사설은 春香이 방자에게 진넌 결말이다. 이 결말은 日本

所藏 春香傳이 다같이 受容하고 있는 것이나, 그 表現이 똑 같은 것은 아니다. 30張本은 香字 脚韻의 名詞가 5개, 安城板本과 東洋文庫本은 4개가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35張本은 이색적으로 「춘향이니 스향이니 네 어미 네 할머니」로 되어 표현의 기이함(oddity)을 드러내고 있다. 30張本의 사설은 다음과 같다.

「춘향이니 사향이니 제향이니 강진향이니 침향이니, 너더러 도령님의 뉘어 바치라 하더나?」

이 때의 「香」字類는 그대로 妓名으로도 볼 수 있으나, 사람·좁·나무 등의 명칭이라 볼 때 결말이 되는 것이다.

「춘향이니 스향이니……」의 사설은 京板本(16 張本), 成春香歌, 南原古詞, 李明善本, 古本 春香傳 등에도 보인다. 그러나, 이들 表現은 서로 차이를 보인다. 古本春香傳은 東洋文庫本과 같은 것이며, 南原古詞는 30張本의 擴張이라 할 多彩롭고 익살스러운 表現을 보여 준다.

② 「양이」 사설

「양이」 사설은 신관 사또가 春香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무슨 양이」를 묻자 新延 下人 혹은 衙前이 이에 대답한 말이다. 이 결말은 春香傳의 대표적인 語戲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양이」 사설은 30張本과 安城板本이 같은 것이며, 東洋文庫本은 35張本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東洋文庫本의 사설은 다음과 같다.

유리 막지기고(莫知其故)하여 겁결의 덕담하더,

「양이라 하옵시니 창고의 군량(軍糧)이오, 육고의 우양(牛羊)이오, 콩고의 잘양이오, 마구의 외양(喂養)이오, 감수 정비 귀양(歸鄉)이오, 기성관비 축양(贖良)이오, 여염집 괴양이오, 불가의 공양(供養)이오. 청빈훈 늙 사양(辭讓)이오, 슈즙은 늙 겸양(謙讓)이오, 시늬가의 슈양(垂楊)이오, 고리결은 평양(平壤)이오, 스경의 한양(閑良)이오. 흥한 늙 불량(不良)이오, 히 다 저서 석양(夕陽)이오, 남너간 음양(陰陽)이오, 엄동설한 휘양(揮項)이오, 허다호 양이 무슈하더 덕강 이리하외다.」

「엎다, 엎다 다 아니로다.」

「젓사오더 스름 못된 거손 잘양이라 하옵너다.」

「그도 아니다」

좌쉬 듯다가 민망하여 꾸러안조

「알외옵기 황송하오나 민의 고을의 소산으로 물 만든 석양이 만스외다.」

東洋文庫本의 사설은 古本 春香傳과 동일한 것이며, 南原古詞와는 같은 내용으로, 배열 순서에 약간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밖의 「양이」 사설은 30張系統의 成春香歌가 비교적 다채로우며 表現도 극적으로 되어 있다. 高大本과 李明善本의 사설은 成春香歌 계통의 것이나, 略化되어 있다(朴甲洙, 1979b).

③ 슈결·괴결

「슈결·괴결」의 語戲는 변 사또의 「슈결·괴결」과, 형방의 다짐 사연에 보이는 「슈결·괴

결·곡결」이 있다. 그러나, 35張本에는 변 사또가 이르는 결말만이 보이는데 하면, 東洋文庫本에는 月梅가 이르는 「슈결·남결」의 결말까지 보여준다. 30張本과 安城板本은 동일한 문맥의 語戲이다. 東洋文庫本の 語戲는 다음과 같다.

「노류장화는 인지가절(人皆可折)이라. 천만의외 너만 년이 정결 슈결 덕결 하니 그런 잔결을 말고
금죽훈 허쥬 신평결이나 하여라. 네가 슈결을 하면 우리 덕부인은 기결하시랴? 요망훈 말 다시 말
고 밧비 올라 슈정하라.」

「살등(白等) 너의 신나 본시 창너지비로 불고스체(不顧事體)하고 슈결 명결(名節)이 하이위지곡결
(何以爲之曲折)이며……」

「심난하다, 슈결 슈결하고 남결[男一]이 슈결[雄一]이나?」

「슈결·기결」語戲는 成春香歌, 南原古詞, 高大本, 李明善本, 古本 春香傳 등에도 보인다. 이 가운데 南原古詞와 古本 春香傳은 東洋文庫本과 同類에 속할 결말로, 「슈결·기결」
「슈결·곡결」 「슈결·남결」을 다 보여 준다.

광의의 「슈결·기결」語戲는 노류장화의 守節을 조소하거나, 守節의 덧없음을 풍자 하기
위한 결말이다.

④ 書冊 풀이

書冊 풀이란 李 道令이 春香을 그리는 마음에 읽는 글자들이 바로 뵈지 아니하여 잘못 이
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文字 그대로 잘못 뵈는 것이 아니고, 語末音에 의해 말장난을
한 것이다. 특히 이 서책 풀이는 漢學의 入門書나 四書三經과 史書를 戲化함으로 諷刺性을
드러낸다. 이의 가장 多彩로운 語戲는 東洋文庫本の 것으로, 이것은 35張本の 倍에 가까운
결말을 보여 준다.

천주는 감지오, 동몽선습 사습(私習)이라. 스략(史略)이 화약(火藥)이오, 통감(通鑑)이 곳감이라.
소학이 북학(北學)이오, 대학은 당학(唐學)이라. 밍주는 비조(批子)오, 논어는 방어(魴魚)로다. 시
전이 쌀전이오, 유합은, 찬합(饌盒)이라. 강목(綱目)은 세목이오, 출추는 호추(胡椒)로다.

이들 語戲는 30張本과 安城板本이 類似하며, 東洋文庫本과 南原古詞는 同一하며, 古本
春香傳은 若干의 차이를 보이거나 같은 文面으로 되어 있다. 이밖에 京板 및 李明善本은 30
張系의 語戲를 보여 준다. 京板本은 아주 간략하게 줄여진 것이다.

⑤ 노름이 고름

이 사설은 두 가지 다른 場面에서 씌어진 것을 보여 준다. 하나는 李道令이 변 사또 生
日宴을 보고 「이 노름이 골음이 되렸다」(30張本)와 같이 獨白하는 것이다. 이것은 30張本安
城板本 東洋文庫本에 다같이 보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陪行御史 出道야 하는 소리에 生
日 잔치가 수락장이 된 것을 묘사할 때 쓰인 것이다. 이는 東洋文庫本에 「기와골이 터지는
듯 노름이 고름이오, 풍악이 별악이라. 노리가 고림이오, 빅반이 현반이라.」가 그것이다. 이것
은 諷刺의인 결말로, 語戲 이상의 喻義語의 의미가 강조되는 表現이라 하겠다(林甲洙, 1979b).

南原古詞와 古本 春香傳에도 이들 두 語戲가 섞였고, 古本 春香傳의 結말은 東洋文庫本과 同一한 것이다.

⑥ 「인」字 및 「연」字 타령

「인」字 및 「연」字 타령은 初夜에 李道令과 春香이 各各 부른 因緣打令이다. 이것은 다른 同音語의 語戲와는 달리 대부분 같은 글자 곧 「人」字와 「年」字를 사용하여 韻律의 효과를 드러내는 것으로, 익살이나 풍자의 맛은 덜한 것이다. 30張本과 安城板本の 사설은 같은 것이나, 安城板本에 落句가 보인다. 30張本の 타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임하하증견일인(林下何曾見一人) 월명고루유여인(月明高樓有女人) 금일번성인고인(今日攀城引故人)
비림궁장불견인(飛入宮牆不見人) 천리타향봉고인(千里他鄉逢故人) 양뉴청청도수인(楊柳青青渡水人)
불견낙교인(不見洛橋人) 풍설야귀인(風雪夜歸人) 귀인(貴人) 병인(病人) 길인(乞人) 노인(老人) 소인(小人) 등 인(等人)으로 인연하여 냥인(兩人)이 혼인(婚姻) 하되 증인(證人)되니 즐겁기도 그지없다.

우락중분미백년(憂樂中分未百年) 호기장구오육연(胡騎長驅五六年) 인노증무경소년(人老曾無更少年)
황빈명조우일연(霜鬢明朝又一年) 적막강산금백년(寂莫江山今百年) 함양유협다소년(咸陽遊狹多少年)
경세우경년(經世又經年) 한진부지년(寒盡不知年) 일년 십년 백년 천년 거년(去年) 금년, 우리 두리 結緣(結緣)하여 백년(百年)을 인연(因緣)하니 백년이 적년(定年)이라.

「인연」타령은 京板本과 南原古詞에도 보인다. 南原古詞의 것은 30張本과 同一한 것이며, 京板本은 安城板本과 가까운 것이다. 그리고, 京板本은 증인으로 「너의 대부인」이 제시되어 文脈上 정연한 표현이 되어 있다.

⑦ 추천·투천

「추천인지 투천인지」(35 張本)하는 結말은 방자가 春香에게 건넨 말이다. 이것은 鞦韆이나 「投川」이나 다같이 「뛰다」를 共有하는 데서 말장난을 한 것이라 하겠다. 東洋文庫本은 이 사설이 「그런지 고원지 추천인지 투천인지」로 되어 좀더 多樣한 語戲가 되어 있다. 東洋文庫本の 結말과 같은 유형은 南原古詞와 古本 春香傳에 보인다. 여기 東洋文庫本の 「고의」가 各各 「고녀」와 「고네」로 되어 있어. 「고의」가 「고녀」의 誤記인 것으로 보게 한다.

⑧ 「덕」字 韻歌

「덕」韻歌는 初夜에 李道令이 노래부른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본 「인연」타령과 같이 「덕 덕(德)」字를 반복하므로 운율적 효과를 노린 표현이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同音異義의 「덕」字에 의해 익살스러운 맛을 드러 내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35張本은 동음이의어로 「벌덕벌덕」하나만이 섞였으나, 東洋文庫本은 여러 개가 섞여 그 表現性을 더하고 있다.

세상 사람 삼겨나서 덕(德) 업시는 못 사리라. 텃황시는 목덕(木德)이오, 지황시는 화덕(火德)이오, 인황시는 슈덕(水德)이오, 교인화식(敎人火食) 슈인시덕(遂人氏德), 용병간패 현원시덕(軒遠氏德), 상비초는 신통시덕(神農氏德), 시희팔패 복희시덕(伏羲氏德), 착산통도 화우시덕(夏禹氏德), 당티중

이고 있다면 十杖歌가 고작이다.

「十杖歌」는 일종의 數謠라 이를 수 있는 것이나, 들려지는 數에 해당하는 同音語를 활용함으로써, 결말이 된 것이다. 이 노래는 원칙적으로 檢杖 소리에 따라 春香이 읊는 것이나, 東洋文庫本 및 南原古詞의 경우처럼 使道の 으뜸장에 발악하며 읊어지는 것도 있다.

35張本과 東洋文庫本の 十杖歌는 읊어지는 장면뿐만 아니라, 그 사실 또한 전혀 다른 것이다. 이들 두 異本에 共通點이 있다면 그것은 두 사실이 결말보다도 數謠에 충실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는 결말로서의 익살보다는 韻律性이 두드러진 표현이라 하겠다. 다음에 35張本の 十杖歌를 보기로 한다.

일편단심(一片丹心) 춘향이 일조(一朝) 낭군 이별하고 일심(一心)에 빚친 한을 일시(一時)만정 풀린손가. 일각일시(一刻一時) 낙미지익으로 일경지심(一定之心) 먹은 마음 이부(二夫)을 켜기릿가.

이인심스낭인지(二人心思兩人知)라. 이월시절(二月時節) 겨난 후의 이군불사(二君不事) 본을 바다 이부불경(二夫不更) 하려 하고 이심(二心) 두지 아니하여 이비(二妃)을 쓰르고져 하노라.

삼생(三生)의 구든 절키 삼춘(三春)갓치 기리스니 삼혼칠백(三魂七魄) 훑터지나 삼강대의(三綱大義) 노홀소나. 삼한 갑족(三韓甲族) 우리 님을 삼산(三山) 갓치 쓰로리라.

스면초지(四面次知) 우리 스도(使道) 스쳐삼경(四書三經) 다 보시고 스백년(四百年) 동방 네의를 스이(四夷)갓치 맞치런들 스지(四肢)을 분열하여도 사해(四海) 정도를 늦치 아니리라.

오당육부(五臟六腑) 갓전만 오륜행실(五倫行實) 모로시니 오월비상(五月飛霜) 나의 함원 오자서(伍子胥)와 일반이라. 오형(五刑)으로 저쥬거나 오츠(五車)의 발기거나 하오.

늑출괴산(六出祁山) 제갈량도 늑일산을 못 죽였고, 늑상산(陸象山) 진도남도 늑정육갑(六丁六甲) 못 부렸소. 늑니 청산(攄湄靑山) 햇분부 마오.

칠현금(七絃琴) 우리 낭군 칠산(七山) 바다 김혼 정을, 칠월 무인야(七月無人夜)의 칠성(七星)넘게 비뒀더니 칠종칠금(七縱七擒) 맹획(孟獲)인가. 칠백니(七百里) 동정호의 초혼조(招魂鳥)나 되오리라.

팔원팔지(八元八愷) 어너 써며, 팔디 금강 어디 간고, 팔천 계조 강동 호걸 팔년 풍진 요란하다. 팔지(八字) 이리 귀박홀가. 팔걸(八傑)의 말을 두번 마오.

구절양양(九折羊腸) 험호 길노 구희산(九疑山) 츠즈가니 구룡산(九龍山) 늑근 농이 구쥬(九州)을 못도라 네 구천의 사뭇친 원이 구원(九原)의 맞치리라.

십악덕퇴(十惡大敗) 오날인가, 십면덕복(十面埋伏) 맞나고나. 십니 강산 유협(游俠) 갖고 십월 광풍 낙엽이라. 십성구생(十生九生) 홀지라도 십왕(十王)전의 백활(白活) 하오리라.

위의 예에 보이듯 오(五)의 오자서(伍子胥), 육(六)의 늑일산, 늑상산(陸象山), 늑니청산(攄湄靑山)이 겨우 同音語에 의한 결말로 씌었을 뿐이다.

十杖歌는 대부분의 異本에 씌어 成春香歌, 南原古詞, 高大本, 李明善本, 烈女春香守節歌, 古本 春香傳 등에 보인다. 그러나, 이들 表現은 모두 다르다. 이 가운데 成春香歌는 매우 不完全한 形態의 것이며, 東洋文庫本과 古本 春香傳은 근사한 文面을 많이 보여 준다.

「한전·훈가지」는 「초명(初命) 진덕부(晉大夫) 위스(魏斯) 도적(趙籍) 한진(韓虔)하여 한 가지로 못 간 줄이 지금 후회막급이라」에 씌어진 것이 그것이다. 李道令이 한 결말로 「훈 가지로」에 表現性을 더하고 있다 하겠다. 이것은 南原古詞와 古本 春香傳에도 쓰이고

있다.

「춘몽이 다정」은 初夜의 道令 사설로, 春香의 「春」과 夢龍의 「夢」을 따, 봄꿈 「春夢」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南原古詞에도 보이는 것이나, 古本 春香傳에는 脱落되었다.

「九九法」은 離別의 사설로서 道令이 늘어놓은 것이다. 이것은 機智에 의해 乘算의 합의 끝 數字를 돌려서 다음 語辭의 頭字이 되게 한 결말이다. 이러한 九九法에 의한 결말은 十杖歌의 발상과 비슷한 것이다. 東洋文庫本の 九九法은 다음과 같다.

구구 팔십 일광노(一狂老)는 너동빈(呂東賓)을 싸라가고, 팔구 칠십 니적선(李謫仙)은 최석강의 완월하고, 칠구 육십 삼노공(三老公)은 한티조를 차세(遮說)하고, 육구 오십 사호선생(四皓先生) 상산의서 바둑 두고, 오구 사십 오자서(伍子胥)는 동문의 눈을 길고, 스구 삼십 육슈부(陸秀夫) 왕과 지지 품어 있고, 사구 삼십 칠대국(七大國)은 전국적 시절이오. 이구십 팔진도(八陣圖)는 제갈무후 병법이오, 일구 굴월(屈原)이는 만고 충신 되려 하고 먹나슈의 쟁져시니 너도 열너 되려 거든 삼강수(三江水)의나 싸지려무나.

九九法에서는 「李謫仙, 伍子胥, 陸秀夫, 屈原」이 결말로 쓰인 것이다. 이러한 九九法은 南原古詞와 古本 春香傳에도 보이며, 이 가운데 古本 春香傳의 것은 東洋文庫本の 내용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九九法은 十杖歌와 함께 詩의 韻律을 빚어 낸다.

이상 部分 同音語의 語戲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部分 同音語에 의한 語戲도 全音 同音語와 마찬가지로 知的인 修辭의 技法이다. 그러나, 表現 効果는 다 같이 滑稽美를 드러내며, 익살스러운 것보다는 기묘하거나 對照的인 面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그것은 語戲의 폭이 全音 同音語에 비해 넓어 表現의 多樣性을 지니기 때문이라 하겠다. 특히 諷刺性은 全音 同音語에서는 볼 수 없던 部分 同音語의 表現性의 특징이다.

異本間의 關係는 全音 同音語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던 30張本과 安城板本이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35張本과 東洋文庫本이 또한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것이 특징적 傾向이다. 이 밖의 두드러진 關係는 30張本—安城板本—成春香歌이다. 「춘향·스향」, 「양이」사설, 「슈절·괴절」에서 같은 脈絡을 찾게 한다. 東洋文庫本—南原古詞—古本 春香傳의 밀접한 관계도 「양이」사설, 「슈절·괴절」, 「턴즈는 감조」, 「노름이 고름」등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35張本—東洋文庫本—古本 春香傳의 관계도 또한 밀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양이」사설, 「츄천·투천」, 「덕」韻歌, 「十杖歌」등이 그것이다.

部分 同音語에 의한 결말이 사용되는 場面은 모두가 對話이다. 그러나, 이것은 特定 話者에 의해 많이 쓰인 것이 아니라, 많은 作中 人物에 의해 쓰임으로, 春香傳의 表現性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곧 道令(3), 春香(2) 방자, 新官, 月梅, 衙前, 刑房, 軍奴, 曰字, 老人등에 의해 씌어진 것이다. 道令의 결말은 書冊 풀이, 「노름·고름」, 「인」字 타령이요, 春香의 결말은 「춘향·스향」, 「연」字 타령이다. 따라서, 部分 同音語에 의한 결말에는 두드러진 性格의 反映은 보이지 않는다 하겠다.

V. 結 語

同音語에 의한 결말은 韻律에 의한 장중한 表現 效果를 드러내나, 이보다는 해학적인 맛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보다 一般的인 경향이라 할 것이다. 春香傳의 결말도 이런 점에서 例外가 아니다. 이들은 대체로 점잖은 風味보다 해학과 풍자를 위해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滑稽는 「廣大笑謔之戲」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日本 所藏 春香傳에는 많은 同音語에 의한 결말이 쓰였다. 全篇 同音語에 의한 결말과 部分 同音語, 그 가운데도 脚韻에 의한 결말이 많이 쓰였다. 前者가 해학을 주로 드러내는데, 비해 後者는 풍자를 드러내는 면이 강하다. 同音語에 의한 결말은 東洋文庫本이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가장 表現性이 짙게 표현되었다. 이것은 陶南(1957:203)이 「貴族的 文學」이라 이른 古本 春香傳의 底本이 되는 것이나, 陶南의 말과는 달리 해학성이 풍부한 「庶民的 文學」이라 해야 할 異本이다. 東洋文庫本 다음으로 表現性을 지니는 것은 35張本이며, 30張本과 安城板本은 滑稽의 表現으로서 결말을 구사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日本 所藏 春香傳 外의 다른 異本과 比較해도 東洋文庫本이 가장 表現性이 두드러진 春香傳의 압권임에는 변함이 없다.

同音語의 결말이 쓰여지는 場面은 주로 對話이며 그 대표적인 使用者는 李道令이다. 이것은 道令의 해학적 성격을 일러 주는 것이다. 이밖의 人物은 두드러진 사용을 보여 주지 않는다. 房子나 月梅가 많은 결말을 쓰고 있지 않음은 注意를 요하는 점이다.

同音語의 語戲의 受容關係는 東洋文庫本이 35張本の 것을, 安城板本이 30張本の 결말을 受容한 것이 두드러진 경향이다. 이들 수용 관계를 좀더 확장하면 35張本→東洋文庫本→古本 春香傳 및, 成春香歌→30張本→安城板本の 과정을 겪는 것으로 推斷된다.

參 考 文 獻

金東旭(1965) 春香傳研究 延世大出版部

金東旭·權寧徹·金泰俊 共編 (1977), 春香傳寫本選集一, 明知大學 國文科 國學資料刊行委員會

金東旭·金泰俊 薛盛璟 (1976), 春香傳比較研究, 三英社

金東旭(1966), 安城板·京板 對校 春香傳, 一山 金斗鍾博士 稀壽紀念論文集

金東旭(1977), 京板, 三十五張本 (九州大學本) 寸 향진, 韓國學報, 第九輯, 一志社

—— (1978), 春香傳의 比較의 研究——「南原古詞를 春香傳文學의 最高峰으로 指定하면서」——, 東方學志 第20輯, 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 朴甲洙(1979a), 사라진 말 살아 남는 말, 瑞來軒
- (1979b), 春香傳의 諧謔的 表現(上) 亞細亞女性研究, 第18輯, 淑大 亞細亞女性 研究所.
- (1980), 春香傳의 한 文體樣相, 蘭汀 南廣祐博士 華甲紀念論叢, 一潮閣
- (1981), 春香傳의 諧謔的 表現(下) 亞細亞女性研究, 第21輯, 淑大 亞女研.
- (1982), 풍자와 익살, 「결말의 寶庫」—— 春香傳, 서울신문, 第1500號 (1982.5.7) 서울신문사.
- 趙潤濟(1957), 校註 春香傳, 乙酉文化社
- 崔南周 (1939), 古本 春香傳 (朝鮮文庫 第一部 第一冊), 學藝社
- 大山敏子 (1971), 英語修辭學, 篠崎書林
- Brooks C., R.P. Warren (1970), *Modern Rhetoric*, third edition, Harcourt, Brace & World.
- Clarence L. Barhart (ed) (1956), *The New Century Handbook of English Literature*, New York Appleton-Century Crofts Inc.
- Cuddon J.A. (1977), *A Dictionary of Literary Terms*, Doubled & Company Inc.
- Genung J.F. (1895), *The Pratical Elements of Rhetoric*, Boston, Ginn & Company.